대학생 불자 신문 펴내, 불교 알리기 Start

9월 10일 〈Campus 108〉 1호 창간



대불련이 펴낸 〈Campus 108〉 창간호. 게임 속 불교와 청년불자들의 연애담 등을 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최근 불교 관련 인터넷 정보를 바로잡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교 반크(Vank,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할 청년신문이 탄생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양희동)는 9월 10일 〈Campus 108〉 창간호를 펴냈다. KBUF불담기자단(단장 김동현, 서강대 종교학과 2학년)을 중심으로 만든 이번 신문에서는 '게임에서 불교를 찾다' 특집과 '연애민국, 자발적인 솔로들은 응답하라' 등 다양한 기사와 함께 '스님이 돈까스를 먹는다?' 는 제목의 궁금점을 풀어주는 기사와 각 대학 불교학생회 소식 등이 실렸다.

또 대불련 봉사단인 '다온'을 파헤쳐보자와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의 인터뷰도 실렸다. 전국불교동아리 현황을 통해 각지의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의 현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불련의 신문 창간은 대학생 불자들의 소식지 역할 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 올바른 불교정보를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반 사회에서는 잘못된 불교 정보를 바로잡는 반크 운동이 활발히 일고 있다. 안동대 민속학과 1학년에 재학하는 오유진(20) 씨는 9월 일본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일반인들에게 세계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사이트 '세계 역사의 창' (世界史の窓 · www.y-history.net)에서 "13세기 초 고려에서 금속활자가 사용됐지만 이 활자로 인쇄된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았다.

韓 '반크' 日〈직지〉정보 수정
정작 불교단체는 활동 전무
대불련 등 역할 기대 높아져

불교계에서도 이 같은 반크 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 주인공은 보리방송모니터회로 1990년부터 일간 방송에서부터 인터넷 관련 뉴스까지 주요 언론에 대한 불교 관련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했다. 또 포교사단은 인터넷 포털이 활성화되던 2005년부터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불교왜곡 정보를 바로잡는 '불교바른정보사업'을 이양 받아 조직,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네이버 지식검색과 각종 블로그에서 잘못된 불교 정보를 바로잡는데 나선 바 있다.

당시 4대 포털사이트의 불교지식 5410건을 모니터링하고 바로 잡아 갔다. 하지만 현재 중단 상태다.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 각 산하단체 및 사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포교 관련 교육을 조직화하는 데 나섰다.

불교계 단체 중 그나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곳이 바로 대불련이다. 대불련은 최근 불교기자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기자교육을 받고 불담기자단 1기를 구성했다. 이어 9월 20일까지 9월~12월 활동하는 1.5기 모집에도 나서고 있다. 대불련은 이번 신문 발간과 함께 인터넷 등에서 활동할 기자들을 양성해 불교반크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동현 KBUF불담기자단 단장은 "지면 신문과 함께 인터넷을 중심으로도 불교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불교를 모르는 이들도 불교에 대해 바르게 알고 신심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1인 미디어의 확산으로 불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다양화되는 인터넷과 방송에서 호법역할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이런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주 흥법사지서 통일신라 금동불 출토

강원 원주 흥법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사진〉이 발견됐다. 원주시와 강원문화재연구소는 "신라시대 절터인 흥법사지(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 발굴조사 중 금동여래입상을 비롯해 건물지 3동과 석축 등을 확인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발견된 건물지는 남북길이 17m, 동서길이 16m 방형에 가까운 금당지로 추정된다. 회랑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에서는 높이 7㎝가량의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됐다.

발굴 관계자는 "출토된 금동여래입상은 향후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유물의 주조기법과 도금방법 등을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흥법사지에는 진공대사 탑비(보물 제463호)와 흥법사지 삼층석탑(보물 제464호)이 위치하고 있으며 원주시와 강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월 24일부터 추후 정비 및 복원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발굴조사를 진행해왔다.



신성민 기자

'보물' 선운사 대웅전, 집중호우에 파손

문화재청, 문화재 피해 15건 확인 · 응급조치

지난 8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고창 선운사 대웅전(보물 제290호) 내림마루 기와가 떨어지고 익산 미륵사지 수로 석축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집중호우로 인해 고창 선운사 대웅전을 비롯해 익산 미륵사지, 안동 하회마을 등 15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고 9월 6일 밝혔다.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난 지역은 주로 충북, 전북, 전남 지역이며,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라서 담장이나 석축이 무너지거나 토성 침하, 목조건물의 지붕 파손 · 천정 누수 · 기와 탈락 등이 대부분이었다.

15건의 문화재 피해 중 불교 관련 피해는 총 3건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고창 선운사 대웅전으로 후면 내림마루 기와가 탈락됐다. 현재는 관람객 출입제한 및 안전띠를 설치했으며 현장 조사 후 복구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 안심사 대웅전은 호우로 인해 석축이 유실됐다. 현재는 석축 주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는 동측 대배수로 석축이 유실됐고, 우장막을 설치해 추가 유실을 방지했다.


8월 말 집중호우로 인해 보물 제290호 고창 선운사 대웅전의 내림마루 기와가 탈락됐다. 현재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조사 후 복구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호우 피해를 입은 15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2차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문화재마다 개별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했다"며 "경미한 피해를 입은 9건에 대해서는 자체복구를 하는 중이며 주요부분의 피해가 있는 6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긴급보수 예산 지원을 검토해 조속히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고전 백암집 · 동계집 한글본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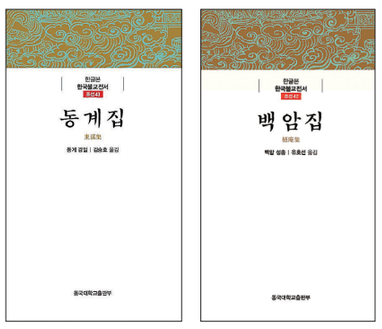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술원 출간
전서 발간 사업 일환으로
〈석보상절〉권3 주해본도

한국불교 고승 문헌인 〈백암집〉과 〈동계집〉의 한글본이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은 한국불교전서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백암집〉 · 〈동계집〉 한글본 2책과 〈석보상절〉 권3 주해본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 한글본 출간으로 지난해 총 55종을 발간한 이후로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문헌은 모두 67종이 됐다.

이번에 발간된 한글본인 〈백암집〉은 조선 후기 승려인 성총(性聰, 1631~1700)의 문집으로 원문은 한국불교전서 제8책에 수록돼 있다. 〈백암집〉은 2권 1책으로, 간행 연대와 장소가 분명치 않은 목판본이 규장각에 소장돼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필사본이 전한다. 권상에는 시(詩), 권하에는 문(文)이 실려 있다.



시는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편집됐으며, 증여시와 차운시의 형태가 많다. 문은 기(記) · 서(序) · 상량문 · 권선문 등으로 양이 풍부한 편이다. 이 중에 특히 기(記)가 많아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동계집〉은 효종 · 현종 · 숙종 연간에 활동한 경일(敬一, 1636~1695) 스님의 시문집으로 네 권으로 이뤄졌다.

〈동계집〉은 경일이 입적한 지 16년 되던 신묘년(1711)에 간행되었는데, 생전의 명성을 생각하면 늦은 시기에 간행됐다는 평가다.

문집 간행에 임해서는 문도인 자감 · 익상 · 원순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감은 직접 '태허당 대사 행적'을 찬술했으며 익상은 〈동계집〉의 개간과 관련, 간기(刊記)를 작성하는 한편, 당시 영남의 큰 학자였던 신주백(申周伯)을 찾아 서(序)를 부탁했다. 원순은 풍계(楓溪)에게 〈동계집〉의 또 다른 서문을 부탁했지만 판각 원고로는 신주백의 서가 선택됐다.

주해본으로 발간된 〈석보상절〉권3은 훈민정음 반포 이후 최초의 산문 번역문헌으로서 정음 문헌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문체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중세국어 연구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문헌이다.

이번 출간으로 ABC사업단이 발간한 주해본은 총 4종이 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전서 한글본 역주 사업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총 324종에 달하는 불교저서를 집대성한 한문불전 '한국불교전서'(전 14책)를 한글화하는 사업"이라며 "각 시대의 불교문화와 역사, 철학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집대성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복지재단, 실무자 연수 '성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혜일)은 8월 29일부터 30일 한국문화연구원서 '2018 실무책임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 재단 산하 사회복지시설 부국장급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최고관리자 · 실무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급증하는 국내 재난상황에 대한 사회복지기관의 신속 대처와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커리큘럼이 신설됐다.

이윤호 한국재난심리연구소장은 '재난 심리지원 활동과 심리적 응급처치법'을 주제로 한 강의서 심리지원의 필요성 및 핵심원칙을 설명했다. 연수자들은 재난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기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다졌다.

이외에도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세훈 유엔미래포럼 한국지부 사무총장은 △불교사회복지의 핵심가치와 실천 △'미리 보는 미래보고서'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지원 기자

